C-10. 치아의 순측 이동이 예정된 교정 치료 환자에서의 유리치은 이식술

서은주*, 정철화, 김옥수, 정현주
전남대학교 치과대학 치주과학교실

치은 퇴축은 치근면의 노출로 그 원인으로 치태, 악궁 내 치아의 위치, 잘못된 칫솔질 방법, 외상성 교합, 이상소대 부착 등이 있다. 순면 치은 퇴축은 항상 치조골 열개와 동반되며 순측 골의 열개 정도와 상응되는 치은 퇴축과는 양적인 상호관계가 있으며(Bernimoulin & Curilovic 1977), 치근 열개는 치은 퇴축의 소인이 된다(Wennström 1990).

교정 치료 도중 치아의 이동에 따라 부착치은의 양에 변화가 생긴다. 치조골 내 순측으로 위치된 치아는 치조골 열개와 얇은 연조직을 가지는데 교정 치료 도중 설측으로 이동되면 순측 부착치은의 두께가 증가되고 폭도 넓어지게 된다. 그러나 치조골 내 원래 위치에서 멀어지는 방향으로 교정적으로 이동되면 mucogingival problem 발생의 위험인자가 된다. 순측으로의 교정적 치아 이동은 그 자체로는 치은 퇴축을 일으키지 않으나 치주조직이 얇은 경우 치은 퇴축이 발생할 수 있다. 순측으로 치아를 이동시키는 교정 치료와 관련되어 치은 퇴축의 발생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 치은 이식 등의 치주 외과적 개재의 필요성을 검토하여야 한다.

유리치은이식술은 Bjorn(1963), King & Pennel(1964) 등에 의해 소개되었으며 부착치은 폭경 증가나 치근면 피개에 널리 이용되고 있으며 조직 두께의 개선도 가져올 수 있다.

본 임상 증례에서는 하악 전치부의 순측 이동이 계획된 교정치료 환자에서 치은 퇴축의 위험성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유리치은 이식술을 통해 부착치은의 폭경과 두께를 증가시켰다.